

수달, 전주 생태동물원 '마스코트'

시, 동물원 BI·캐릭터 선포식... 생태동물원으로서의 정체성 확립·브랜드 가치 향상 기대

전주천에 서식하는 멸종위기동물 수달이 관광객과 동물들이 함께 행복한 생태동물원으로 탈바꿈중인 전주동물원의 새로운 마스코트가 됐다.

전주시는 지난달 29일 전주동물원 잔디광장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생태동물원 다울미당 위원, 어린이, 일반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태동물원 BI 및 캐릭터 선포식'을 개최하고 전주동물원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BI(Brand Identity)와 대표캐릭터 수달을 공개했다.

하버드유치원생들의 풍요 및 울동축하공연으로 문을 연 이날 선포식에서는 전주동물원장의 BI 및 캐릭터 개발 결과보고, 전주시장의 기념사, 주요내빈들의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시는 전주동물원 BI에 생태동물원으로 변화중인 전주동물원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 숲과 자연을 의미하는 녹색을 동물원의 상징 색으로 표현했으며, 동물복지와 생태환경 변화의 의미를 담았다.

또, 한글(동물원)과 영문(ZOO)으로 동시에 읽히는 디자인으로 세계 속으로 뻗어가는 전주동물원의 브랜드 가치를 표현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전주동물원의 대표동물인 수달의 캐릭터 디자인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수달은 먹이사슬을 균형 있게 조



전주시는 지난달 29일 전주동물원 잔디광장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생태동물원 다울미당 위원, 어린이, 일반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태동물원 BI 및 캐릭터 선포식'을 개최했다.

절해주는 수환경지표종으로, 생태동물원을 지향하는 전주동물원의 정체성과 어울려 새로운 마스코트가 됐다.

전주동물원 야외방사장은 과거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구조됐으나 자연방사가 불가해 전주동물원으로 기증된 2마리의 수달 '수수'와 '달달'이 현재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생태동물원 조성사

업을 통해 △큰물새장 △사자·호랑이 △늑대사 △곰사 △초식동물의 숲 등 전주동물원에 서식중인 다양한 동물의 보금자리를 자연서식지와 유사하게 조성해왔다. 현재는 전주동물원에서 생활하는 호랑이와 원숭이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시베리아호랑이사와 원숭이사 신축공사를 진행중으로, 올 연말 준공후 내년부터는 관람객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전주생태동물원이 새로운 BI와 캐릭터 선포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서고, 브랜드 가치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전주동물원을 단순한 전시 중심의 동물원에서 벗어나 동물이 주인공인 공간이자, 시민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생태동물원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내년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이달 중 일반형·복지·특화형 등 295명

내년 1월부터 1년동안 전일제 주 5일 40시간



전문수사관 인증 수여식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29일 경찰청에서 분야별 전문 수사관을 선발해 '전문수사관 인증수여식'을 열었다. 인증수여식에는 올해 추가로 선발된 전문수사관 14명이 참석해 인증서를 전달받았다.

이 제도는 2006년 수사 경찰의 자기개발 유도 방안의 일환으로 수사경과 제도와 함께 도입돼 2018년 인증분야를 확대하고 요건을 강화하는 등 개선이 이뤄졌다.

특히, 올 해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학교폭력', '미야사범' 분야가 신설됨에 따라 전북경찰청에서 9개 인증분야에 14명의 전문수사관이 추가 선발됐다.

지금까지 전북청은 총 160명의 전문수사관을 배출해 24개 분야에서 180건을 인증받았다.

이들은 사이버도박사범, 조직폭력, 에너지사범, 화재감식, 컴퓨터디지털 증거분석 등 다년간의 수사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찰 수사에 앞장서고 있다.

조용식 청장은 "공정하고 전문적인 수사를 통해 신뢰받는 전북경찰이 될 수 있도록 전문수사관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정다은 기자

덕진구 한 모텔서 화재 발생

지난달 29일 오전 8시 57분경 전주시 덕진구의 한 모텔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투숙객 2명이 대피했지만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모텔 6층에서 시작된 불은 소방당국의 장비 16대와 소방관 48명이 동원돼 3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정다은 기자

중·소규모 학술대회 유치, 전주형 마이스산업 육성

전주시, 학회 관계자 초청

'마이스 팸투어' 실시

전주시가 다양한 학술대회를 유치해 전주형 마이스산업을 키우기 위해 나섰다.

시는 지난달 29일과 30일 1박 2일 동안 국내 학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전주지역 마이스 시설과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고, 맛과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마이스 팸투어를 실시했다.

이번 팸투어는 앞서 시가 전주지역 6개 호텔과 공동으로 100여개 학회가 입주한 한국과학기술관에서 입주 학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전주지역 마이스 기반시설과 회의개최 인센티브 제도를 홍보한데 이어 직접 방문 견학을 희망한 학회의 신청을 받아 진행됐다.

이들간 진행된 팸투어에서 참가자들은 국립무형유산원과 전주전통문화유산원, 그랜드힐스턴, 왕의지빌 등 학술대회 개최가 가능한 마이스 시설을 직접 둘러봤다.

시는 또 전주한옥마을, 덕진공원, 팔복예술공간 등 대표 관광지 와 다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위원장 백영규 의원)가 28일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지역 '전주시 노인회관 조성 사업지 등 6곳'의 현장 활동에 나섰다.

양한 전통공연, 한옥숙소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팸투어에 참가한 관계자는 "그 동안 전주라는 도시에 관심이 있었지만 회의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는데, 직접 회의시설을 둘러보고 관광과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보면서 전주가 학술대회 개최지로써 매우 큰 잠재력을 지닌 도시라는 것을 알게 된 매우 유익한 자리였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학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설명회와 팸투어를 실시해 전주가 마이스 행사 개최지로써 최고의 도시라는 것을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마이스 행사 유치를 통해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은 물론, 지역관광과 관련 산업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는 싱가포르의 최고 명문학교로 손꼽히는 래플스고등학교(Raffles Institution)의 교사와 학생 등 35명의 체험학습단이 지난달 28일과 29일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전주를 찾았다.

글로벌 체험학습여행지 '전주'

싱가포르 명문 래플스 고교 전주 방문... 수학여행지로 3번째

세계적인 명문학교들의 단체방문이 잇따르면서 전주가 세계 청소년들이 글로벌 리더십을 키우는 체험학습여행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전주시는 싱가포르의 최고 명문학교로 손꼽히는 래플스고등학교(Raffles Institution)의 교사와 학생 등 35명의 체험학습단이 지난달 28일과 29일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전주를 찾았다고 밝혔다. 래플스고등학교의 전주 방문은 지난 2017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3번째 이어지고 있다.

체험여행단을 인솔한 래플스고등학교 교사는 "지난 2년간 전주를 글로벌체험학습지로 선택한 뒤 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워 올해도 전주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전주를 찾은 배경을 설명했다. 래플스고등학교 체험학습단은 첫날 세계적인 여행매거진 트립래더가 아시아에서 꼭 가봐야 할 도시 3위로 선정된 전주한옥마을을 찾아 한국문화의 정수를 체험했다. 이어, 국립무형유산원을 찾아 무형유산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둘째 날인 29일 전주시청을 찾아 김승수 전주시장을 예방하고, 전주시의 지속가능한 도시정책들에 대한 의견을 듣기도 했다.

래플스고등학교는 내년에도 글로벌체험학습지로 전주를 선택하고, 전주지역 학생들과 교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영국 세인트랄라거사대학교 학생 32명도 지난 6월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 주목받고 있는 전주에서 진행된 글로벌리더십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리더십을 키우기도 했다.

이들은 경계에 구애받지 않는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리더십 개발기구인 영국 커먼퍼포즈(Common Purpose)가 마련한 글로벌리더십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영국 대학생들로, 김승수 전주시장과 간단한 점심을 곁들인 토론모임인 브라운백미팅(Brown bag meeting)을 갖고 전주가 글로벌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추진해 온 다양한 정책들을 배우기도 했다.

전주시 최현창 기획조정장은 "전주는 더 이상 외국인들이 단순 한국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방문하는 곳이 아니라, 한국의 기초자치체를 대표해서 지속가능한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을 학습하러 오는 체험의 장이 되고 있다"면서 "미래 글로벌 리더들이 될 학생들의 방문을 단순 수학여행단으로 생각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미래 전주를 홍보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아야 하고 이를 지역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우리시 학생들의 글로벌네트워크까지도 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923년 설립된 래플스고등학교는 리관우 전 싱가포르 총리를 비롯해 수많은 싱가포르 지도자와 수재들을 배출한 명문학교로, 이번 전주일정을 마무리한 학생들은 서울에서 일정을 소화한 뒤 5일 출국한다.

/김윤상 기자

사회혁신캠퍼스 조성 본격화

전주시, 28억원 투입

시청 인근 건물에

전주시가 시민들의 혁신 실험실이자 전주지역 사회혁신 생태계를 이끌 핵심기인 사회혁신캠퍼스(가칭) 조성을 본격화한다.

시는 내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총 28억원을 투입해 시청 인근(완산구 기린대로 209) 건물에 지상 5층, 지하 1층의 규모의 사회혁신캠퍼스 건립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6월 행정안전부의 '지역거점별 소통합력공간'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5년간 총 10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으며, 이 사업의 일환으로 1호점인 성평등전주는 오는 20일 개관식을 앞두고 있다.

지역거점별 소통합력공간 2호점인 사

회혁신캠퍼스는 내년 5월 완공을 목표로 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공사를 발주해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사회혁신캠퍼스에는 향후 △정보열람실 및 자율작업공간 △리빙랩 활동 및 협력공간 △교육공유센터 및 창업플랫폼 센터 △사무공간 및 공유회의실 등이 갖춰져 그간 양성한 다양한 커뮤니티 사업들이 이곳에 입주해 전주 사회혁신 생태계를 이끌게 된다.

특히 시는 사회혁신캠퍼스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하는데 시민들이 보다 쉽게 도전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사회혁신에 대한 주도적인 참여와 다양한 분야 간 협력 등 새로운 방법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영양교사 초청 워크숍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센터장 강성욱)는 최근 평화동 알앤시아 웨딩홀에서 전주지역 각급학교 영양사와 영양교사, 전주푸드 생산자, 친환경 생산농가, 전주시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전주학교급식지원센터 영양교사 초청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전주푸드 학교급식의 현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더 나은 학교 급식 제공을 위한 방향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학교급식 전문가를 강사로 초청해 '친환경급식의 방향과 건강한 급식 문화'를 주제로 △친환경급식의 올바른 방향을 통한 건강한 몸 △지리산은 성장기 아이들의 먹거리가 삶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친환경급식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도 진행됐다.

/김윤상 기자